

# 도시경관에 대한 주민의식 변화 연구

## - 전라남도 영암군을 대상으로 -

### A Study on Changes in Residents' Consciousness on Urban Landscape

- Focused on Yeongam-gun in Jeollanam-do -

김 윤 학\*  
Kim, Yun-Hag

유 창 균\*\*  
Yoo, Chang-Geun

박 성 진\*\*\*  
Park, Sung-Jin

#### Abstract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and analyzed changes about the landscape consciousness of Yeongam-gun residents, in chronological order. As a result, the landscape consciousness of 10 years ago and the present has not changed significantly. Also, the residents' consciousness of the Yeongam-gun landscape image has not changed from 10 years ago, and we recognize that it is necessary to preserve and form the natural landscape.

As for the problem of urban landscape, the needs of residents for the development of urban infrastructure facilities and the development of tourist spots are higher than 10 years ago, and the problem of each landscape element is found as the formation and management of a road environment. It was found that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the Yeongam landscape is generally below average, compared to 10 years ago. Residents'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landscape projects has changed as the number of respondents who do not want to participate has increased compared to 10 years ago, and the project method must be promoted by residents / administration / experts as one. The awareness is judged as administrative agencies need to change from the role of regulation-oriented in the past to the role of resident support and cooperation.

주 요 어 : 경관기본계획, 경관의식, 경관법

Keywords : Basic Landscape plan, Landscape Perception, Scenic Conservation Act

## 1. 서 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도시기반시설에 확충에 대한 다양한 요구는 어느 정도 충족되어 생활환경이 향상되면서 도시에 대한 지향성도 자연 환경이나 역사문화 환경의 보존 등 도시경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도시 간 경쟁으로의 변화와 함께 도시가 관광 상품이 되도록 하여 관광객을 모음으로써 도시 경제의 활력을 주는 원천이 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도시경관에 대한 다양한 요구에 비해 경관행정이나 경관 만들기에 대한 시민참여, 통합적 경관사업에 대한 의식 부족, 도시경관을 전개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의 형성 부족 등의 이유로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경관법이 2007년에 제정되었고, 이후 2018년에 개정되었다.

이에 지자체마다 경관법을 근거로 한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경관기본계획은 지역의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경관, 도시·농어촌의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

복원함과 동시에 새로운 경관을 창출하기 위한 기본구상 및 정책방향을 설정하며, 이에 대한 실행방안 등을 제시하는 자치적 법정계획으로<sup>1)</sup> 행정의 일률적, 강제적 규제보다는 주민의 주체적 참여를 통해 지역공유의 합의를 통해서 형성해가야 하고, 이는 경관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식이 매우 중요하는 것과 맥을 함께 한다.

경관의식 조사는 경관계획수립지침에도 경관현황 조사 항목 중의 하나로 포함되고 있고, 이의 지침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자체들은 경관의식 조사를 필수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경관의식 조사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데, 특히 경관법에 의해 5년마다 경관계획 재정비가 의무화되면서 기 수립된 경관계획에서의 주민의식과 현재 시점에서의 경관의식 변화 양상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경관기본계획을 재 수립중인 영암군을 대상으로 경관에 대한 주민의식을 조사하고, 기 수립된 2020년 기준 영암군 경관기본계획의 주민 의식과 비교하여 영암군 경관에 대한 의식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분석하여 지자체의 경관형성 방향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경관에 대한 주민의식과 의식 변화 양상을 조사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2016.

\* 조선이공대학교 건축과 부교수, 공학박사

\*\*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공학박사

\*\*\* 목포대학교 건축공학과 조교수, 공학박사

(Corresponding author : Department of Architecture, Mokpo National University, ycg8133@mokpo.ac.kr)

한 연구로 2021년 현재 경관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있는 영암군을 대상으로 하였다. 영암군은 경관법 제정 이후 영암군의 경관향상 및 보존을 위해 2010년에 2020 영암군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21년 현재 2030년을 목표로 한 영암군 경관기본계획을 재수립 중에 있다. 조사는 먼저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영암군 경관자원 현황을 조사한 후 현재 경관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있는 영암군 군민을 대상으로 영암경관에 대한 의식을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분석 하였다. 그 후 기 수립된 영암군 경관기본계획에 나타난 영암군민의 경관의식과 비교하여 영암군민의 영암군 경관에 대한 의식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조사대상 영암군의 일반적 현황은 다음 <Table 1>과 같다.

Table 1. Spatial Scope and General Status of Yeongam

	면적	603.50km <sup>2</sup>
	행정구역	2읍9면
	인구	58,703명
	가구	26,851

자료: 영암군 통계연보, 2018

## 2. 관련 선행연구 고찰

본 연구와 관련된 경관의식 연구는 경관계획에 따른 하나의 단계로서 경관의식을 분석하여 경관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연구와 경관의식조사를 통해 경관행정이나 경관사업, 정책 등에 참여정도 또는 향후 과제를 제시한 연구, 경관계획에서의 경관유형 및 요소 등의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경관의식 분석 연구, 경관에 대한 주민 의식 변화 분석 연구 등으로 나타났다.

먼저 경관계획에 따른 하나의 단계로서 경관의식 조사를 진행한 연구로 이유직 등(2015)<sup>2)</sup>은 농촌경관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농촌개발계획 및 경관계획에 참여하는 지방업체와 담당 공무원의 인식을 조사하였고, 장혜선과 손용훈 등(2011)<sup>3)</sup>은 일본 수도의 근교도시인 마츠도시를 대상으로 지역주민의 경관인식 분석을 통해 근교도시의 녹지경관에 주목하여 그 특성을 살펴보고 향후 근교도시 녹지경관의 보전계획 및 활용방안에 대한 방향성을 고찰하였다. 성형찬 등(2003)<sup>4)</sup>은 용인시를 대상으로, 경관개선을 요구하는 층의 시민, 실제로 경관개선을 제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공무원, 경관의 형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개발사업자 등 3자에 대해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의식 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용인시의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경관계획 수립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경관의식 조사를 통해 경관행정이나 경관사업, 정책 등에

참여정도 또는 향후 과제를 제시한 연구로 고인석(2014)<sup>5)</sup>의 경우 김해시 도시경관에 대하여 시민과 전문가 2개 집단 사이에 인식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도시경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박진현 등(2012)<sup>6)</sup>은 농촌경관 관리 정책에 대한 주민, 공무원, 전문가의 태도를 비교하여 농촌경관 관리정책의 개선을 제안하였으며, 박은영 등(2019)<sup>7)</sup>은 금산시의 농촌경관개선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의 인식과 참여만족도를 조사하였다.

경관유형 및 요소 등 구체적인 경관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경관의식 분석 연구로 양정순(2017)<sup>8)</sup>은 도시공원 야간경관을 조성하고 집행하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현재 국내 도시공원 야간 실태와 직면한 문제점을 다양한 시각으로 파악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였고, 김상범 등(2015)<sup>9)</sup>은 전남을 중심으로 도민 경관의식 조사 등을 통해 전남 공공디자인의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병대(2011)<sup>10)</sup>은 천안시 구도심 복원을 위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그 방안을 제시하였고, 김은자 등(2017)<sup>11)</sup>은 경관관련 전문가의 인식조사를 통해 농촌경관 색채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경관에 대한 주민의 의식 변화 분석 연구로 주신하 등(2012)<sup>12)</sup>은 용인시를 대상으로 지난 10여 년간의 경관인식 변화 분석을 통하여 경관에 대한 문제의식, 경관 관련 주민참여정도, 경관개선 체감 정도 등을 분석하였고, 박현찬 등(2010)<sup>13)</sup>은 서울시를 대상으로 1994년, 2004년, 2009년 시행된 설문조사의 비교를 통하여 시민인식의 변화를 고찰하여 2009년 설문조사의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시민 및 전문가가 인식하는 서울의 경관 및 관리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였다. 이장민 등(2015)<sup>14)</sup>은 김해시를 대상으로 도시경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2003년과 2011년 사이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아보았다.

이상과 같이 경관의식 변화에 대한 양상을 도출한 연구는 극소수인 반면 경관의식 조사를 경관계획의 단계로 인식하거나 주민의 참여정도 파악 또는 경관계획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영암군을 대상으로 현재의 시점에서 영암경관에

2) 이유직 외 1인, 농촌경관관리 개선을 위한 주제 간 인식 비교,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17(4), 2015, pp.41-48.  
 3) 손용훈 외 1인, 근교도시의 녹지경관 유형에 따른 지역주민의 경관인식, 한국조경학회지 39(5), 2011, pp.101-110.  
 4) 성형찬, 용인시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경관의식 조사,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6(6), 2003, pp.1-13.

5) 고인석, 김해시 도시경관에 대한 시민과 전문가의 인식차이 연구,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16(1), 2014, pp.169-176.  
 6) 박진현 외 1인, 농어촌경관 관리정책에 대한 관련 주체의 의식분석 및 향후 과제, 농촌계획 18(3), 2012, pp.123-135.  
 7) 박은영 외 3인, 농촌경관 개선사업에 대한 주민인식 및 참여만족도 연구, 농촌계획 25(1), 2019, pp.1-10.  
 8) 양정순, 도시공원 야간경관에 대한 전문가 인식 조사, 기초조경학연구 18(3), 2017, pp.221-235.  
 9) 김상범 외 1인, 전라남도의 경관의식조사를 기반으로 한 공공디자인 방안 연구, 한국경관학회지 7(2), 2015, pp.72-89.  
 10) 이병대, 경관중심 마을 만들기를 통한 천안시 구도심 재생 방향 설정에 관한 주민의식 조사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7(11), 2011, pp.299-308.  
 11) 김은자 외 5인, 전문가 인식에 따른 농촌경관 색채계획 방향 설정 연구, 농촌계획 23(1), 2017, pp.31-40.  
 12) 주신하 외 1인, 용인시에 대한 경관의식 변화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40(5), 2012, pp.88-99.  
 13) 박현찬 외 5인, 서울 도시경관에 대한 인식 변화와 차이에 관한 연구, 서울도시연구 11(4), 2010, pp.33-49.  
 14) 이장민 외 1인, 김해시 도시경관에 대한 시민의 인식변화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6(2), 2015, pp.1483-1489.

대한 국민 및 공무원의 경관의식을 비교 조사·분석하고 아울러 경관개선사업 및 개발사업 진행, 경관법 개정, 경관에 대한 의식 증대 등과 같은 다양한 변화 요인이 발생한 최근 10여 년간의 경관의식 변화를 2011년과 2021년을 기준으로 분석한 연구로 그 차이점이 있다.

### 3. 영암군 경관자원 현황

영암군 경관자원 현황은 영암군의 행정구역인 11개 읍·면의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주요 경관자원의 분포 및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였고, 실효성 있는 경관자원 조사·분석을 위해 국토교통부 경관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2015. 3)을 참조하여 산림경관, 수경관, 농촌경관, 도로 및 가로경관, 역사문화경관, 시가지경관의 6가지 경관유형과 건축물, 공공시설물, 옥외광고물, 도시색채, 야간경관의 5가지 경관구성요소 등의 총 11개 조사항목으로 구분하여 영암군 11개 경관자원 현황을 조사하였다.

#### 3.1 경관유형별 현황

영암군의 유형별 경관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산림경관은 영암군 남쪽과 동쪽으로 월출산을 맥으로 하는 산악지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특히 남동쪽에 월출산이 천황봉(809m)을 최고봉으로 구정봉, 사자봉 등 많은 봉우리를 일으키면서 기암절벽을 이루고 있고, 이외에 국사봉(613m), 흑석산(650m), 매봉산(357m), 가학산(575m), 도갑산(376m) 등이 입지되어 있다.

Table 2. Forest Landscape Status in Yeongam



국립공원 월출산은 전남 서남부지역 최고의 관광여건을 보유한 명산으로 줄기에 밤재·감재·도갑재 등이 있어 장흥·강진·해남으로 연결되고 있다. 또한 영암군 동쪽으로는 활성산(498m)에서 백마산(314m), 석교산(393m), 삼암산(301m)으로 연결되는 산림축과 더불어 활성산에서 백룡산(421m), 오봉산(162m)으로 연결되는 산림축이 형성되어 있고, 남서쪽에는 장전산(207m)에서 상은적산(395m), 하은적산(304m)으로 연결되는 산림축이 형성되어 있다.<Table 2>

수경관은 국가하천인 영산강 1개와 지방하천 19개, 소하천 133개가 분포하고 있으며 총 연장길이는 496.55km로 주요 저수지는 성산제와 학파제 등이 있다.

특히 영암읍 기존 시가지 좌측을 통과하는 회문천은 월출산 천황봉에서 발원하여 영암천과 합류, 영암호로 합류하고 있으며, 월출산 향로봉 기슭에서 발원하는 망호천도 영암천에 합류하는 준용하천으로 주요 농업용수로 활용되고 있다. 아울러 방조제와 간척지 공사로 이루어진 영산호, 영암호는 대규모 소호를 형성하고 있다.<Fig. 1>



Fig. 1. Waterscape Status in Yeongam

영암군의 농촌은 군 전체에 걸쳐 크고 작은 경작지가 하천을 따라 형성되어 있는데, 특히 영암군 북쪽과 서북쪽에 해당하는 시중면과 도포면은 넓은 평야지대가 형성되어 개방된 농경지로의 조망경관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하우스 등의 재배시설 및 건축물의 색채가 이질적인 경관을 형성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관리방안이 필요하다.<Fig. 2>



개방된 경작지로의 조망경관 우수



이질적 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비닐하우스 및 건축물 색채

Fig. 2. Rural Landscape Status in Yeongam

영암군의 도로 총연장은 2020년 기준 417.1km이며, 이중 고속국도는 15.6km, 일반국도는 55.2km, 지방도는 157.7km, 군도는 188.6km로 조사되고 있다. 영암군의 도로경관은 목포항에서 영암으로 진입하는 관문 도로라 할 수 있는 국도 2호선을 제1 도로경관 축으로, 영암의 평야와 산지의 자연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국도 13호선을 제2 도로경관 축으로, 영암의 풍광과 월출산을 여러 각도에서 이동하면서 풍경을 지속적으로 조망 가능한 지방도 819호선을 제3 도로경관 축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 도로변 건축물의 색채와 불법 광고물 등이 도로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Table 3>

영암군 역사문화 경관은 월출산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천황사, 도갑사, 왕인박사유적지, 구림마을 등이 집적된 형태로 조성되어 있는 내륙형 관광도시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기(氣)를 테마로 한 관광자원 및 시설이 분포하고 있으며, 왕인박사를 중심으로 한 왕인문화축제, 왕인국화축제, 그리고 한옥건축박람회 등이 개최되고 있다.

Table 3. Road Landscape Status in Yeongam



영암군은 역사문화자원으로 불교 유적을 비롯하여 전통 취락, 고분군, 선사주거지 등 다양한 유형의 문화재들이 분포되어 있으며, 도갑사 해탈문(제50호)과 월출산 마애여래좌상(제144호)은 국가지정문화재 중 국보로 지정되어 있고,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 9점 등과 도지정문화재인 유형문화재 9점, 기념물 21점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전라남도의 3.6%, 도지정문화재는 7.2%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Fig. 3>



Fig. 3. Historical and cultural Landscape Status in Yeongam  
이미지출처 : 2020 영암경관기본계획, p.27, 발췌 재구성

영암군의 시가지 경관은 영암읍과 삼호읍을 대표 이미지로 나타낼 수 있는데, 영암읍의 경우 높고 낮은 산림에 둘러싸인 분지 지형의 중심부에 영암읍을 대표하는 중심시가지 형성되어 있고, 마호천 및 국도·지방도를 중심으로 농촌마을과 산업시설이 밀집되어 도심과 농촌마을이 혼재한 도농복합경관 형성하고 있다. 삼호읍은 806번지방도와 2번국도를 따라 주거지가 밀집되어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고, 영산호와 810번 지방도 주변으로 도심과 산업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공동주택과 농촌주택, 상업 및 산업건축물 등이 혼재한 도시구조로서 용도 간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경관형성 방안이 필요하다.<Fig. 4>

### 3.2 경관 요소별 현황

영암군 경관구성 요소 중 건축물 경관은 영암읍과 삼호읍, 그리고 9개 면소재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공공건축물의 경우는 재료, 색채 등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경관을 형성하는 건축물도 나타나고 있으나 고층의 공동주택이 배정

이 되는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돌출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노후 된 건축물의 지붕 및 벽면이 도시경관과 조화되지 못하고 있고, 도로변 상업 및 산업건축물의 고명도·고채도 색채가 이질 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며, 기존건축물과 신축건축물이 조화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할 수 있는 경관 가이드라인 및 심의·인허가 기준마련이 필요하다.<Fig. 5>



Fig. 4. City view of Yeongam-eup and Samho-eup



Fig. 5. Architectural Landscape Status in Yeongam

공공시설물은 동일한 기능의 가로시설물간에 형태, 색채, 재료 등 인접한 시설물 간의 디자인 통일성이 부족하므로 통합디자인 관점에서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및 재료, 색채 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Fig. 6>



Fig. 6. Public facilities Status in Yeongam

옥외광고물은 영암읍, 삼호읍, 학산면 등은 일부구간을 옥외광고물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어느정도 정돈된 가로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나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구간이나 면소재지의 경우 다양한 규격, 재질, 색채 디자인으로 인해 복잡한 가로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시가지 구간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개선사업을 통해 주변경관과 조화되고 정돈된 가로환경 형성이

필요하며, 특히 가로변 건축물이나 공공시설물에 설치된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Fig. 7>



다양한 디자인으로 복잡한 가로형관 형성 불법 현수막 및 입간판

Fig. 7. Outdoor Advertising Status in Yeongam

도시색채 경관은 가로변 상업건축 등의 고채도·고명도 색채가 주변 환경과 조화되지 못하고 이질적 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도시경관 형성을 위해 도로에서 조망되는 건축물 및 공공시설물을 중심으로 색채정비가 필요하고, 노후 된 건축물 입면의 색채 역시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색채관리 및 가이드라인 수립이 필요하다.<Fig. 8>



고채도·고명도 색채가 조화되지 못하고 이질적 경관 형성



주변경관과 조화되지 못하는 벽면 벽화 노후 된 건축물 색채

Fig. 8. City Color Landscape Status in Yeongam

야간경관은 주요 상업가로에 설치된 고채도 LED 조명광고물과 도로변 숙박시설 지붕 및 옥탑부의 연출형 LED조명이 야간경관을 훼손하고 있고, 가로변 돌출형 LED 조명광고물과 점멸형 조명 광고물이 빛 공해를 유발하고 있다. 또한 주요 생활가로는 적절한 조도를 확보하고 있으나 이면도로 및 골목길의 경우 조도가 낮아 조명시설의 증설이 필요하며, 야간의 도시이미지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읍면별 차별화된 야간경관 관리방안 마련 필요하다.<Fig. 9>



LED조명 연출형 LED조명 생활가로 조도

Fig. 9. Night view Landscape Status in Yeongam

#### 4. 도시경관에 대한 주민 의식 분석

##### 4.1 조사개요 및 조사대상의 일반적 현황

본 연구를 위한 조사대상은 영암군에 거주하거나 영암군에 직업을 가지고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는 영암군 경관 의식 조사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

데, 설문조사는 건축 및 도시 관련 전문가들을 포함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영암군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전문가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은 이메일을 이용하여 사전 배포 후 회수하는 비대면 방법으로 실시하였고, 영암군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영암군 11개 읍면에 직접 방문하여 1대1 응답방식 및 설문지 배포 후 회수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20년 7월부터 8월까지 약 2달에 걸쳐 조사하였고 총 574부(영암군민 400부, 공무원 174부)의 설문지 중에서 유효 설문지 547부를 각 문항별로 코딩을 한 후 빈도분석 등을 실시하여 경관 의식의 일반적 경향을 파악하였으며, 분석은 통계프로그램인 SPSS STATISTICS 21을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의 성별은 남자(56.9%)가 여자(43.1%)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은 50대가 28.9%로 가장 많고, 다음은 40대(24.4%), 30대(23.2%), 20대(16.2%), 60대 이상(7.3%) 순으로 나타났다.<Fig.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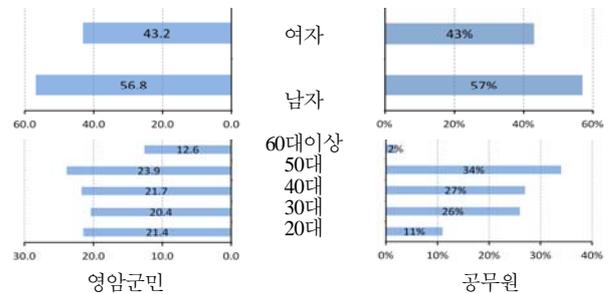


Fig. 10. Survey target gender and age

조사대상 영암군민의 학력은 '고졸'이 51.2%로 가장 많고, 다음은 '대졸 이상'(39.9%), '중졸'(8.3%), '초졸 이하'(0.5%) 순으로 나타났으며, 직업은 '서비스업'(30.6%), '전문직'(18.0%), '전업주부'(9.7%) 순으로 나타났고 기타 '무직'인 조사대상도 26.0%로 높게 나타났다.<Fig. 11>

영암군 거주기간은 '5년 미만'이 22.9%로 가장 많고, 다음은 '20~29년'(19.4%), '40년 이상'(19.2%), '10~19년'(16.8%) 순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이중 영암군민의 경우 '40년 이상'(24.4%), '20년~29년'과 '5년 미만'(각각 18.8%), '10년~19년'(16.6%) 순이고, 공무원은 '5년 미만'(27.0%), '20년~29년'(20.0%), '10년~19년'(17.0%) 순으로 나타났다.<Fig.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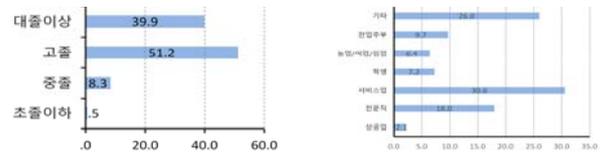


Fig. 11. Survey target education level and occup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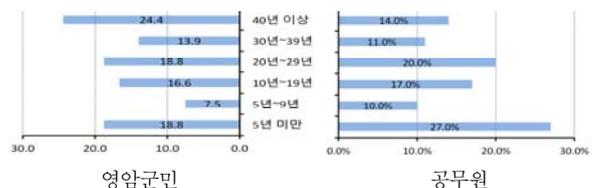


Fig. 12. Survey target Period of residence in Yeongam

#### 4.2 영암 경관에 대한 주민의식 조사

영암군의 대표 이미지는 ‘자연경관’이 52.6%로 가장 많고, 다음은 ‘역사문화’(14.9%), ‘음식과 관련한 미향’ (14.4%), ‘없다’(7.1%), ‘문화예술과 관련된 예향’(5.6%)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영암주민은 ‘자연경관’(40.2%), ‘음식과 관련된 미향’ (27.9%), ‘역사/문화’(13.9%), ‘문화예술과 관련된 예향’(8.3%) 순이고, 공무원은 ‘자연경관’(65.0%), ‘역사/문화’(16.0%), ‘없다’(11.0%), ‘문화예술과 관련된 예향’(3.0%) 순으로 영암주민이나 공무원 모두 자연경관을 영암군 대표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고, 다음으로 영암주민은 미향을, 공무원은 미향보다는 역사/문화를 영암군 대표이미지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Fig.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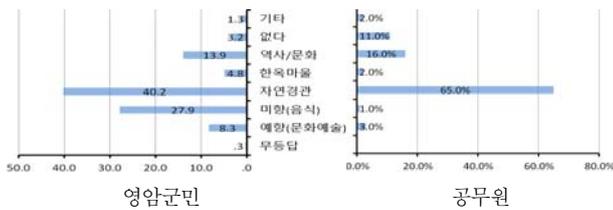


Fig. 13. Representative image of Yeongam

또한 영암군 대표 이미지에 대한 의식을 2020년 기준 경관 의식과 비교해 보면 기존 대비 상승한 이미지는 ‘역사문화’(11.8%), ‘없다’(5.3%), ‘미향’(2.2%) 순인 반면 하락한 이미지는 ‘자연경관’(10.9%), ‘예향’(6.6%), ‘한옥마을’(3.1%) 순으로 나타나서 영암군의 대표 경관으로서 자연경관 및 예향 관련 이미지 형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Fig.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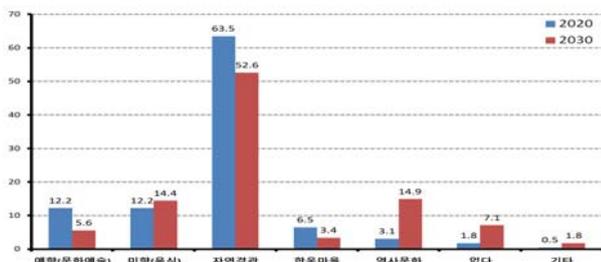


Fig. 14. Changes in awareness of the representative image of Yeongam

영암군의 특징적 경관요소는 ‘월출산’이 85.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역사/문화유적’(5.8%), ‘주요공공시설물’(3.0%), ‘수변공간’(2.4%) 순으로 나타났다.<Fig. 15>



Fig. 15. Characteristic landscape elements of Yeongam

2020년 기준 경관의식과 비교해 보면 특징적 경관요소 중 ‘월출산’은 기존 대비 15.8% 상승한 반면 ‘수변공간’(10.0%),

‘역사문화유적’(2.5%), ‘주요가로’(1.6%) 순으로 하락한 요소도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Fig.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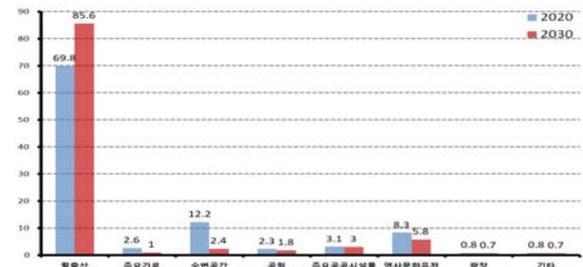


Fig. 16. Changes in Consciousness of the Characteristic Landscape Elements of Yeongam

영암의 색을 나타내는 경관 이미지는 ‘월출산’이 84.6%로 가장 많고, 다음은 ‘역사/문화유적’(8.2%), ‘기타 평야나 흙’(2.5%), ‘수변공간’(2.3%) 순으로 나타났다.<Fig.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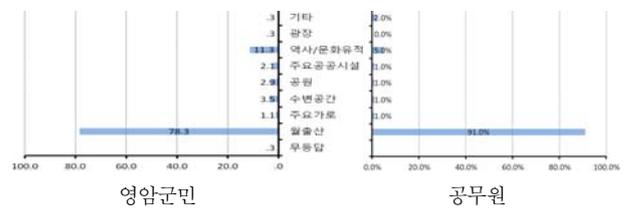


Fig. 17. A landscape image representing the colors of Yeongam

2020년 기준 영암군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색채에 대한 경관 의식과 비교해보면 ‘녹색’(43.5%), ‘청록’(17.4%), ‘연두’(15.1%), ‘파랑’(8.1%), ‘노랑’(6.5%) 순으로 나타남으로써 영암군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색채와 이를 나타내는 이미지는 ‘녹색과 연두색’, ‘청록색’은 ‘월출산’과 ‘역사/문화유적’으로 나타낼 수 있고, ‘노랑색’은 ‘기타 평야나 흙’으로, ‘파랑색’은 ‘수변공간’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된다.<Table 4>

Table 4. Comparison of colors and landscape images of Yeongam

2020 기준	색채	구성비(%)	이미지 (2030)
연두 15.1%	연두	15.1	월출산, 역사/문화유적
청록 17.4%	청록	17.4	
녹색 43.5%	녹색	43.5	수변공간
파랑 8.1%	파랑	8.1	
노랑 6.5%	노랑	6.5	평야, 흙

영암군이 추구해야 할 대표 이미지는 ‘월출산’(66.1%), ‘역사/문화유적’(14.9%), ‘수변공간’(6.1%), ‘공원’(3.9%) 순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공무원은 기타 의견으로 담양 메타프로방스 같은 경관가로 개발과 힐링을 키워드로 한 경관 이미지 창출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Fig. 18>

2020년 기준 영암군이 추구해야 할 대표 이미지에 대한 경관 의식은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환경’(42.2%), ‘지역문화’(16.4%), ‘풍부한 먹거리 문화’(15.4%), ‘상업/서비스업의 활성화’(10.9%),

‘역사적 문화유산의 계승 및 보존’(7.8%) 순으로 나타나 영암군이 추구해야 할 대표 이미지는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환경은 ‘월출산’과 ‘수변공간’이 대표 이미지이고, ‘지역문화나 예술이 왕성한 문화’는 ‘공원’이 대표 이미지이며, ‘역사적 문화유산의 계승’은 ‘역사/문화유적’이 대표 이미지인 것으로 분석된다.<Table 5>



Fig. 18. Representative image that Yeongam should pursue

Table 5. Comparison of representative images that Yeongam should pursue

구분	구성비(%)	대표이미지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환경	42.2	월출산, 수변공간
지역문화	16.4	공원
풍부한 먹거리 문화	15.4	주요가로
상업/서비스업의 활성화	10.9	
전남지역의 중심	7.3	
역사적 문화유산이 계승보전	7.8	광장 등 기타
역사적 문화유산이 계승보전	7.8	역사/문화유적
합계	100.0	

영암군 경관 향상을 위한 잠재적 경관요소는 ‘월출산’이 64.8%로 가장 많고, 다음은 ‘역사/문화유적’(15.8%), ‘수변공간’(7.1%), ‘주요공공시설’(3.6%) 순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공무원 그룹은 기타 의견(3.0%)으로 하늘 등의 자연 이미지나 체험장, 벚꽃 길 등의 가로 이미지도 영암 경관 향상을 위한 잠재적 경관요소로 응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19>



Fig. 19. Potential Factors for Improving the Landscape of Yeongam

2020년 기준 경관의식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의 풍부함’(39.6%), ‘풍부한 역사문화적 관광자원’(28.4%), ‘넓은 농지의 도농 복합도시로의 잠재력’(16.4%), ‘대규모의 산업자원’(15.6%), 순으로 조사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의 풍부함’은 ‘월출산과 수변공간’이 영암군 경관의 잠재적 이미지임을 나타내고, ‘풍부한 역사문화적 관광자원’은 ‘역사/문화유적’, ‘공원’이 영암군의 경관향상을 위한 잠재적 이미지 요소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된다.<Table 6>

영암군의 전반적인 도시경관 관련 문제점에 대한 의식은 영암군민의 경우 1순위는 ‘문화/여가시설의 부족’이 26.5%로 가장 많고, 다음은 ‘산업의 위축’(23.9%), ‘주차 문제’(13.7%), ‘환

경오염과 교통 혼잡’(각각 6.7%) 순으로 나타났다. 2순위는 ‘문화/여가시설의 부족’(24.7%), ‘교통 혼잡’(16.9%), ‘주차 문제와 도시 재정의 부족’(각각 12.3%), ‘산업의 위축’(9.9%) 순으로 나타났으며, 3순위는 ‘교통 혼잡’(23.9%), ‘도로올 부족’(18.5%), ‘도시재정의 빈약’(11.3%), ‘문화/여가시설의 부족’(9.1%) 순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은 ‘문화/여가시설의 부족’이 34.1%로 가장 많고, 다음은 ‘산업의 위축’(19.7%), ‘도시재정의 빈약’(18.0%), ‘주차문제’(8.5%)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의견으로 ‘인구 감소’, ‘경관에 대한 시민의식 부족’, ‘관광지 부족’ 등으로 응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20>

Table 6. Comparison of potential factors for landscape improvement in Yeongam

구분	구성비	잠재적요소 (2030)
자연환경	39.6	월출산, 수변공간
역사/문화적 관광자원	28.4	역사/문화유적, 공원
산업자원	15.6	공공시설
넓은 농지의 도농 복합도시	16.4	-
합계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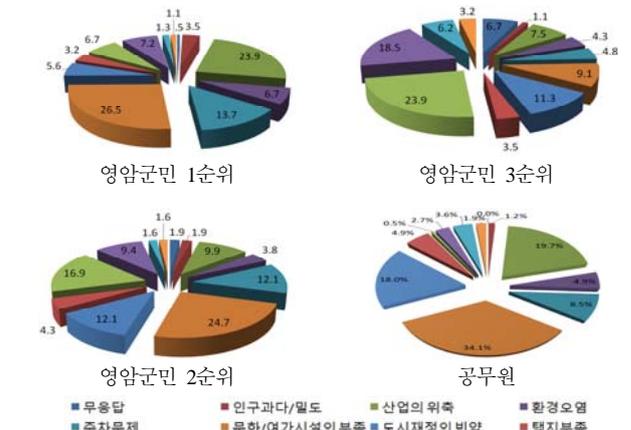


Fig. 20. Urban Landscape Problems in Yeongam

2020년 기준 경관의식과 비교해 보면 영암군의 전반적인 도시 관련 문제점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문화/여가시설의 부족’은 1% 상승했고, 다음의 ‘산업의 위축’은 1.2% 상승했으며, 다음의 ‘주차 문제’는 10.3%의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도시재정의 부족’은 10.5%의 높은 하락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순위는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문화/여가시설의 부족’은 2.8% 상승했고, 다음의 ‘교통혼잡’은 13.8%의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주차문제는 ‘8.2%’ 상승한 반면 도시재정의 빈약은 ‘12.2%’의 높은 하락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순위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교통혼잡’은 19.5%의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다음의 ‘도로올 부족’은 6.5% 상승했으며, ‘도시재정의 빈약’은 3.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Fig.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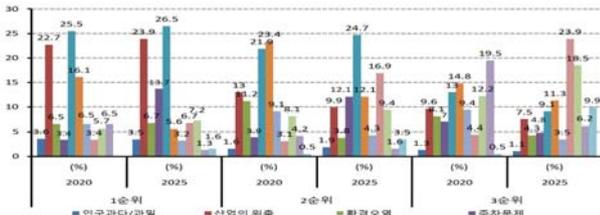


Fig. 21. Comparison of urban landscape problems in Yeongam

영암군 경관개발을 위해 우선 시행되어야 할 개발 항목 1순위는 영암군민의 경우 ‘도로포장/개수’가 20.1%로 가장 많고, 다음은 ‘관광지개발’(17.7%), ‘주택개발/재개발’(16.6%), ‘도서관/문화시설 확충’(12.6%)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2순위는 ‘도서관/문화시설 확충’(17.7%), ‘주택개발/재개발’(16.9%), ‘병원/의료시설 확충’(14.7%), ‘복지회관 확충’(12.3%) 순이고, 3순위는 ‘병원/의료시설 확충’(21.4%), ‘도서관/문화시설 확충’(12.9%), ‘관광지 개발’(12.3%), ‘복지회관 확충’과 기타의견(각각 11.8%) 순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그룹은 ‘관광지 개발’이 30.6%로 가장 많고, 다음은 ‘병원/의료시설 확충’(22.4%), ‘주택개발/재개발’(15.2%), ‘도서관/문화시설 확충’(14.2%) 순으로 나타났다.<Fig.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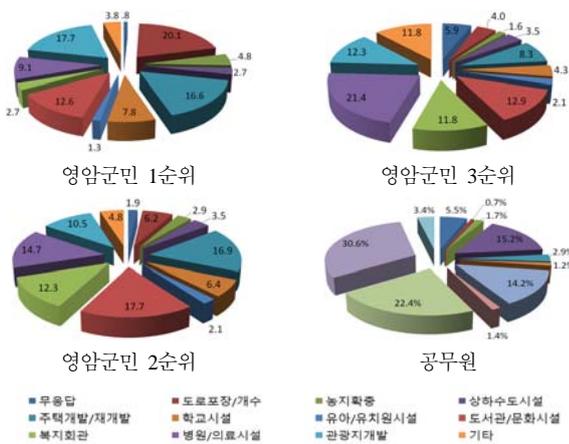


Fig. 22. Development items to be implemented first for landscape development

2020년 기준 경관인식과 비교해 보면 경관개발을 위해 우선 시행되어야 할 항목 1순위에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도로포장/개수’는 2.1% 상승했고, 다음의 ‘관광지 개발’은 2.1% 상승했으며, ‘주택개발/재개발’은 2.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순위에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도서관/문화시설’은 7.3% 상승했고, 다음의 ‘주택개발/재개발’은 5.2% 상승했으며, ‘병원/의료시설’은 3.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3순위는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병원/의료시설’은 3.7% 상승했고, 다음의 ‘도서관/문화시설’은 6.1% 상승했으며, 다음의 ‘관광지 개발’은 6.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Fig. 23>

영암군 관광지와 근교 지역과의 교통체계는 영암군민의 경우 ‘그저 그렇다’가 52.5%로 가장 많고, 다음은 ‘부족하다’(30.8%), ‘만족한다’(11.8%)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경관인식과 비교해 보면 영암군 내 관광지와 근교 지역의 교

통체계는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그저 그렇다’는 9.7% 하락했고, 다음 순위인 ‘부족하다’는 0.1% 상승했으며, 다음의 ‘만족한다’는 5.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Fig.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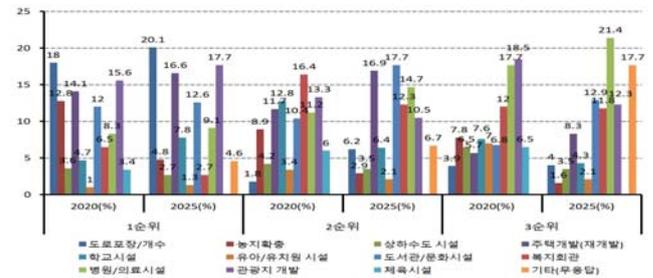


Fig. 23. Comparison of development items that should be implemented first for landscape develop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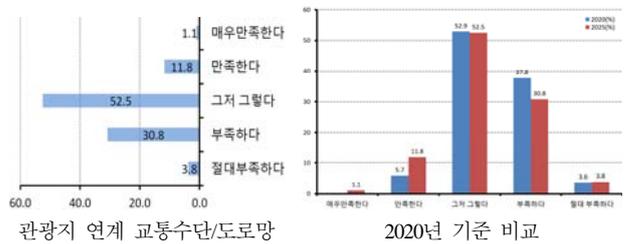


Fig. 24. Consciousness and comparison of transportation means linked to tourist destinations

영암군과 대도시를 연결하는 지역 간 연계 교통수단과 도로망에 대해서는 영암군민의 경우 ‘그저 그렇다’가 50.7%로 가장 많고, 다음은 ‘부족하다’(27.6%), ‘만족한다’(15.8%) 순으로 나타났으며, 공무원은 ‘만족한다’ (43.0%), ‘그저 그렇다’(30.0%), ‘부족하다’(20.0%) 순으로 나타남으로써 지역 간 교통수단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Fig.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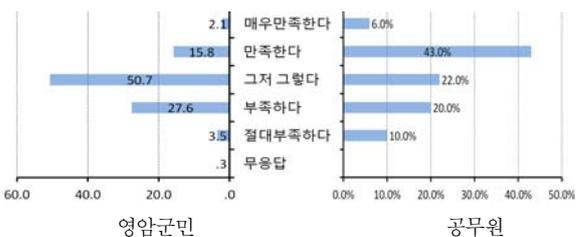


Fig. 25. Connected transportation between large cities and connected areas

2020년 기준 경관인식과 비교해 보면 영암군과 대도시를 연결하는 지역 간 연계 교통수단과 도로망에 대한 만족도는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그저 그렇다’는 20.7% 하락했고, 다음 순위인 ‘부족하다’는 5.5% 하락했으며, 다음의 ‘만족한다’는 18.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10년전과 비교하여 지역 간 교통수단은 조금 더 나아졌으나 아직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공용주차장 설치 시 필요한 장소에 대해서는 영암군민의 경우 ‘터미널 부근’이 57.1%로 가장 많고, 다음은 ‘기타’(30.8%), ‘신북 중심지 부근’(18.0%) 순으로 나타났으며, 공무원은 ‘신북

중심지 부근'(67.0%), '터미널 부근'(19.0%), '대불산단 일원'(10.0%) 순으로 나타났고, 이외에도 대단지 아파트 부근이나 보건소 주변, 오일시장 인근 설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Fig. 26>

Table 7. Inter-regional transportation/road network comparison

구분	2020(%)	2030(%)
매우만족한다	-	3.3
만족한다	6.0	24.3
그저 그렇다	62.2	41.5
부족하다	30.7	25.2
절대 부족하다	1.0	5.5
기타(무응답)	-	0.2
합계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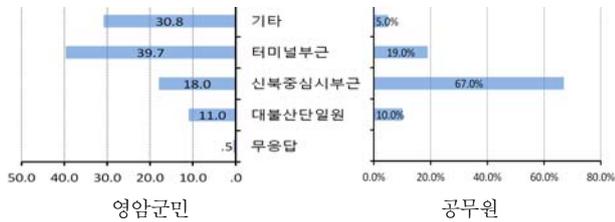


Fig. 26. Places where public parking is required

2020년 기준 경관 의식과 비교해 보면 영암군 공용주차장 설치 장소는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터미널 부근'이 25.0% 하락했고, 다음의 '신북중심지 부근'은 19.6% 하락했으며, 다음의 '대불산단 일원'은 2.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8>

Table 8. Comparison of places requiring installation of public parking lots

구분	2020(%)	2030(%)
대불산단 일원	7.8	10.6
신북 중심지 부근	31.8	12.2
터미널 부근	58.1	33.1
읍면중심지부근	-	21.2
기타(무응답)	2.4	22.5
합계	100.0	100.0

영암군 보행환경 만족도는 영암군민의 경우 '그저 그렇다'가 47.5%로 가장 많고, 다음은 '불편하다'(34.6%), '만족한다'(12.6%) 순으로 나타났으며, 공무원은 '불편하다'(37.0%), '그저 그렇다'(36.0%), '만족한다'(14.0%) 순으로 나타났다.<Fig. 27>

2020년 기준 경관 인식과 비교해 보면 영암군 보행환경 만족도는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그저 그렇다'는 28.2%의 큰 하락율을 보이고 있고, 다음의 '불편하다'는 11.9% 상승했으며, '만족한다'는 8.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10년 전과 비교해 보행환경 만족도는 조금 상승한 것으로 변화되고 있으나 아직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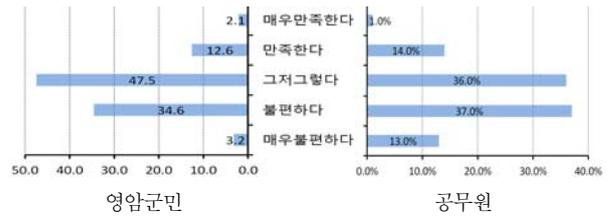


Fig. 27. Satisfaction with the pedestrian environment in Yeongam

Table 9. Comparison of satisfaction with walking environment

구분	2020(%)	2030(%)
매우만족한다	-	16.4
만족한다	4.7	13.2
그저그렇다	71.9	43.7
불편하다	23.4	35.3
매우불편하다	-	6.2
Total	100.0	100.0

영암경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영암군민의 경우 1순위는 '주변 환경과 부조화된 건축물'이 19.6%로 가장 많고, 다음은 '무질서한 전신주와 전선'(15.8%), '광장/소공원 관리소홀' 및 '고층 아파트단지의 건설'(각각 12.6%), '노상 불법주차'(10.5%) 순으로 나타났다. 2순위는 '광장/소공원 관리소홀'(13.7%), '쓰레기'(13.1%), '관리되지 않은 가로수'(11.5%), '무질서한 보행환경'(10.2%) 순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은 '무질서한 전신주와 전선'이 19.4%로 가장 많고, 다음은 '주변 환경과 부조화된 건축물'(17.0%), '노상 불법주차'(12.9%), '무질서한 간판 및 옥외 광고물' (12.0%) 순으로 조사되었다.<Fig.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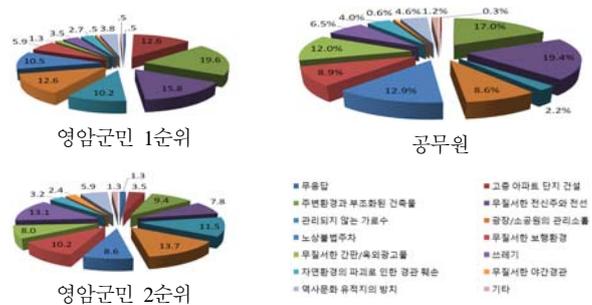


Fig. 28. Recognizing the problem of Yeongam scenery

2020년 기준 경관 의식과 비교해 보면 영암군민의 1순위 응답 중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주변환경과 부조화된 건축물'은 2.3% 상승했고, 다음의 '무질서한 전신주와 전선'은 7.7% 하락했으며, 다음의 '광장/소공원의 관리소홀'은 1.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순위에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광장/소공원의 관리소홀'은 2.2% 상승했고, 다음의 '쓰레기'는 2.2% 상승했으며, '관리되지 않은 가로수'는 9.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가로경관이나 쓰레기가 영암군 경관 형성에 큰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Fig. 29>

영암군 경관개선을 위해 우선 고려되어야 할 대상 1순위는

영암군민의 경우 ‘도로/교량 등의 정비’가 15.8%로 가장 많고, 다음은 ‘광장 등의 오픈스페이스 확충’(13.7%), ‘전신주 등의 경관 장애물 정비’(13.4%), ‘상징적인 건축물의 신축/정비’(9.7%) 순으로 나타났다. 2순위는 ‘전신주 등의 경관 장애물 정비’(14.5%), ‘영암의 상징 조형물 조성’(13.1%), ‘상징적인 건축물의 신축/정비’(11.0%), ‘도로/교량 등의 정비’(10.2%) 순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은 ‘전신주 등의 경관 장애물 정비’가 16.3%로 가장 많고, 다음은 ‘광장 등의 오픈스페이스 확충’(14.5%), ‘역사 문화 유적지와 주변경관의 정비’(11.2%), ‘간판/옥외광고물 규제’(8.5%), ‘하천주변 친수 공간 조성’과 ‘상징적인 건축물의 신축/정비’(각각 7.9%) 순으로 나타났다.<Fig.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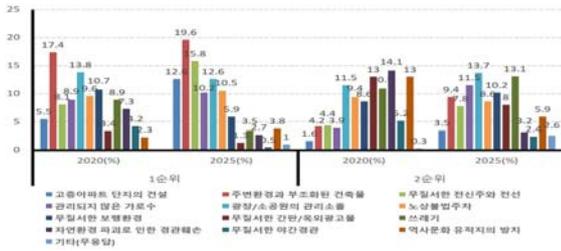


Fig. 29. Comparison of recognition of problems of Yeongam scene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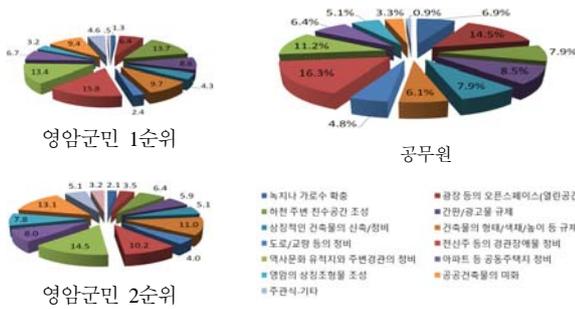


Fig. 30. What to consider first for improving the landscape of Yeongam

2020년 기준 경관 인식과 비교해 보면 영암군민의 1순위 응답 중에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도로/교량 등의 정비’가 6.7% 상승했고, 다음의 ‘광장 등의 오픈스페이스 확충’은 5.1% 상승했으며, 다음의 ‘전신주 등의 경관 장애물 정비’는 10.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순위는 ‘전신주 등의 경관장애물 정비’는 5.4% 상승했고, 다음의 ‘상징적인 건축물의 신축/정비’는 5.0% 상승했으며, ‘도로/교량 등의 정비’는 0.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자연경관 형성에 대한 우선적 고려보다는 공공시설물의 정비나 공공공간의 확충을 우선적 고려로 경관인식이 변화된 것을 알 수 있다.<Fig. 31>

영암군 경관요소별 만족도를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군민의 경우 영암군 전체 경관 만족도는 3.02로서 평균값인 3.0 정도에서 약간 상회하는 보통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고, 요소별로는 ‘현재 거주지역의 경관 만족도’(3.09), ‘하천/호수 친수공간의 정비상태’(3.03)는 평균값 3.0을 약간 상회하는 보통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경관 요소 중 ‘시가지 내 차도/보도경관’(2.65), ‘시가지 내 간판/옥외광고물경관’(2.70), ‘상업지역 경관’(2.72), ‘공업/산업단지경관’(2.75) 등은 평균값 이하의 부정적 요소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Fig.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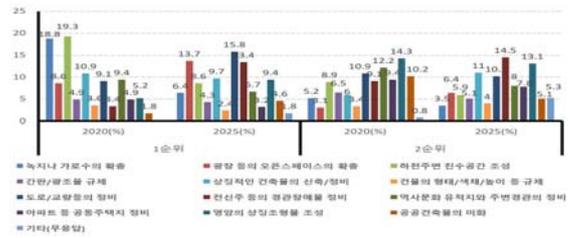


Fig. 31. Comparison of the first considerations for improving the landscape of Yeong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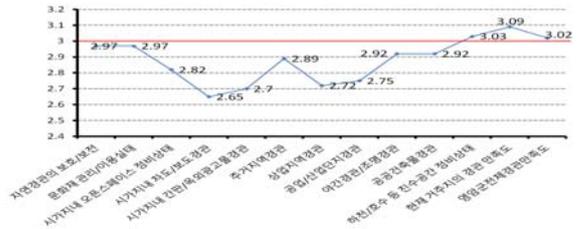


Fig. 32. Satisfaction level by landscape elements in Yeongam

2020년 기준 경관 인식과 비교해 보면 경관요소별은 평균치가 가장 높은 현재 ‘거주지역의 경관 만족도’는 0.05 상승했고, 다음으로 평균치가 높은 ‘하천/친수공간 정비 상태’는 0.14 하락했으며, 다음의 ‘영암군 전체 경관 만족도’는 0.07 상승한 평균값을 상회하는 보통의 만족도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평균치가 높은 ‘자연경관 보호/보전’과 ‘문화재 관리/이용실태’는 각각 0.33과 0.09 상승하였고, 다음의 ‘주거지역경관’은 0.25 하락하였으며, ‘시가지내 오픈스페이스 정비 상태’는 0.2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영암군 전체 경관 만족도는 평균값 정도로 상승했으나 나머지 대부분의 경관요소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값 이하의 부정적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0>

Table 10. Comparison of satisfaction by landscape elements

구분	2020			2030		
	N	평균값	표준편차	N	평균값	표준편차
자연경관의 보호/보전	384	2.64	0.66	373	2.97	0.58
문화재 관리/이용실태	383	2.88	0.66	373	2.97	0.72
시가지내 오픈스페이스 정비상태	384	3.10	0.72	373	2.82	0.76
시가지내 차도 및 보도경관	384	3.25	0.75	373	2.65	0.82
시가지내 간판/옥외광고물	384	3.21	0.75	373	2.70	0.85
시가지내 공원녹지의 양과 질	384	3.16	0.73	-	-	-
주거지역경관	384	3.14	0.72	373	2.89	0.73
상업지역경관	384	3.14	0.67	373	2.72	0.78
공업/산업단지 경관	384	3.10	0.71	373	2.75	0.82
야간경관/조명경관	384	3.23	0.81	373	2.92	0.79
공공건축물의 경관	384	3.10	0.74	373	2.92	0.76
하천/호수 친수공간 정비상태	384	3.17	0.72	373	3.03	0.72
현재 거주지역의 경관 만족도	384	3.04	0.64	373	3.09	0.66
영암군 전체 경관 만족도	384	2.95	0.60	373	3.02	0.76

영암군의 전체/경관요소별 만족도에 대한 공무원 그룹의 만족도는 ‘보통’이 56.0%로 가장 많고, 다음은 ‘불만족’(33.0%), ‘만족’(6.0%) 순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거주지에 대한 경관 만족도는 ‘보통’이 44.0%로 가장 많고, 다음은 ‘불만족’ 40.0%, ‘만족’ 10.0% 순으로 나타났다. 경관요소별로는 자연경관의 보호/보전

상태는 '보통'이 67.0%로 가장 많고, 다음은 '만족'(16.0%), '불만족'(13.0%) 순으로 나타났으며, 문화재 관리/이용실태도 '보통'(60.0%), '만족'(19.0%), '불만족'(16.0%) 순으로 나타났다. 시가지 내 오픈스페이스 정비 상태는 '보통'(44.0%), '불만족'(40.0%), 과 '매우 불만족'(각각 8.0%) 순으로 나타났고, 시가지 내 차도/보도 경관은 '보통'(43.0%), '불만족'(38.0%), '매우 불만족'(11.0%) 순으로 나타났으며, 시가지 내 간판/옥외광고물 경관은 '보통'(49.0%), '불만족'(36.0%), '만족'(9.0%) 순으로 나타났다. 주거지역 경관은 '보통'(57.0%), '불만족'(30.0%), '만족'(9.0%) 순으로 나타났고, 야간경관/조명경관은 '보통'(47.0%), '불만족'(39.0%), '매우 불만족'(9.0%)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건축물 경관은 '보통'(57.0%), '불만족'(24.0%), '만족'(13.0%) 순으로 나타났고, 하천/호수 등 친수공간 정비 상태는 '보통'(54.0%), '불만족'(32.0%), '만족'(8.0%)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경관요소 항목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Fig.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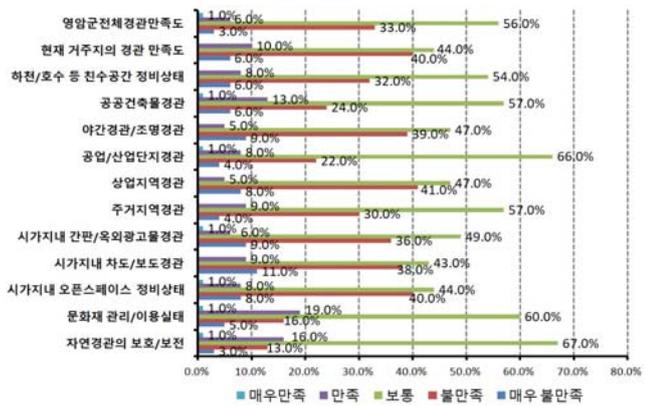


Fig. 33. Satisfaction level of public officials in Yeongam by landscape element

영암군에서 경관 가꾸기 사업을 할 경우 참여 의사는 '상황에 따라 참여'가 71.3%로 가장 많고, 다음은 '참여하고 싶지 않음'(16.6%), '전혀 참가하지 않음'(7.2%) 순으로 나타났다.<Fig. 34>

2020년 기준 경관 의식과 비교해 보면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상황에 따라 참여'가 5.8% 하락했고, 다음의 '참여하고 싶지 않음'은 11.0% 상승했으며, 다음의 '전혀 참여하지 않음'은 4.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경관 가꾸기 사업의 주민참여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Fig. 34>

영암군에서 공공시설에 대한 경관 정비를 할 경우의 참여 의사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참여'가 38.3%로 가장 많고, 다음은 '가능한 참여'(23.9%), '잘 모르겠다'(19.3%), '참여하지 않음'(14.2%) 순으로 나타났다.<Fig. 35>

2020년 기준 경관 인식과 비교해 보면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참여'는 17.5% 상승했고, 다음의 '가능한 참여'는 26.9%의 큰 하락율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의 '잘 모르겠다'는 11.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공공시설에 대한 경관 정비를 할 경우의 참여 의사 역시 10년 전 대비 더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Fig.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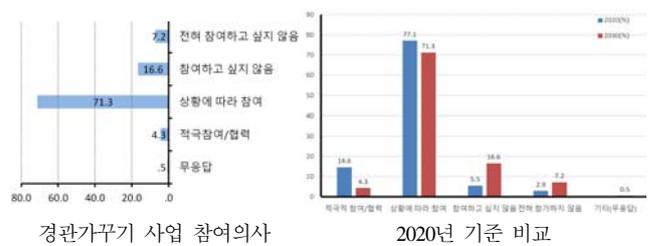


Fig. 34. Compare with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landscape proje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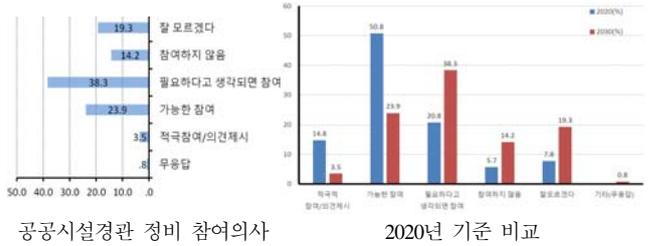


Fig. 35. Comparison with intention to participate in landscape improvement projects for public facilities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사업 방법은 영암군민은 '주민/행정/전문가 등이 일체가 되어 협력.추진'이 34.6%로 가장 많고, 다음은 '다각적인 경관지원제도 확충으로 점진적인 유도'(22.5%), '시민의 교육홍보를 통한 경관인식/주민협력체 중심으로 추진'(18.2%), '주민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행정이 지원'(12.3%) 순으로 나타났다.<Fig. 36>

공무원은 '주민/행정/전문가 등이 일체가 되어 협력.추진'(43.0%)이 가장 많고, 다음은 '다각적인 경관지원제도 확충으로 점진적인 유도'(30.0%), '법·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강력하게 추진'(16.0%) 순으로 나타났다.<Fig.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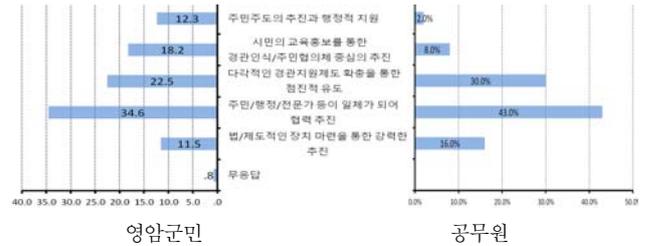


Fig. 36. Business methods for improving the city landscape

2020년 기준 경관 인식과 비교해 보면 현재 영암군민의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주민/행정/전문가 등이 일체가 되어 협력.추진'은 1.0% 상승했고, 다음의 '다각적인 경관지원제도 확충으로 점진적인 유도'는 1.7% 상승했으며, '시민의 교육홍보를 통한 경관인식/주민협력체 중심으로 추진'은 3.2% 하락율을 보이고 있고, '주민주도의 추진과 행정적 지원'은 3.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10년 전 대비 주민참여에 대한 인식은 더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Table 11>

Table 11. Comparison of business methods for improving urban landscape

구 분	2020(%)	2030(%)
법/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통한 강력한 추진	15.6	11.5
주민/행정/전문가 등이 일체 되어 협력 추진	33.6	34.6
다각적인 경관지원제도 확충을 통한 점진적 유도	20.8	22.5
시민의 교육 홍보를 통한 경관인식/주민협업체 중심의 추진	21.4	18.2
주민주도의 추진과 행정적 지원	8.6	12.3
기타(무응답)	-	0.8
계	100.0	100.0

## 5. 결론

본 연구는 경관기본계획을 재 수립중인 영암군을 대상으로 군민의 경관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고 기 수립된 2020년 기준 영암군 경관기본계획의 경관의식과 비교하여 영암군의 경관에 대한 군민의식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분석한 연구로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영암군 경관이미지에 대한 의식은 영암 대표 이미지의 경우 자연경관과 역사문화경관을 대표이미지로 응답하고 있고, 영암경관의 특징적 요소는 월출산으로 나타났으며, 영암의 색채를 나타내는 이미지와 경관향상을 위한 잠재적 요소 역시 월출산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20년 기준 경관의식과 비교해 보면 대표이미지에 대한 자연경관 의식은 하락하였고, 추구해야할 대표이미지는 월출산, 수경관 등으로 응답하고 있어서 10년 전과 변화 없이 역사문화, 인공경관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지만 아직은 자연경관에 대한 보존, 형성이 더 필요하다는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경관에 대한 문제점은 문화·여가시설의 부족, 주차문제, 도시재정의 부족 등으로 나타났고, 해결을 위해 우선 시행되어야 할 항목은 도로포장개수 및 주택재개발, 관광지개발과 도서관/문화시설 확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10년 전 경관의식과 비교해보면 도시기반시설이나 주택정비, 관광지 개발에 대한 주민의 요구가 더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경관요소별 문제점은 주변 환경과 부조한 된 건축물과 무질서한 전신주와 전선, 광장/소공원 관리소홀로 나타났고, 10년 전 경관계획에서의 경관의식과 비교해보면 무질서한 전신주와 전선에 대한 응답이 많아져 가로환경 형성 및 관리방안에 대한 수립이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경관개선을 위해 우선 고려해야할 항목 역시 기존 경관의식 대비 자연 및 역사문화경관 조성보다는 가로시설물 정비나 오픈스페이스의 확충에 대한 의식이 더 높아진 것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영암 경관에 대한 만족도는 기존 경관계획 수립시기인 2011년에는 항목별 평균값이 보통을 상회하는 항목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재의 만족도는 현재 거주지역과 하천 등 친수공간의 정비 상태는 평균치를 상회하는 보통의 만족도를 보이는 반면 나머지 항목은 평균이하의 불만족으로 의식이 변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경관현황에서도 나타났듯이 상업시설과 가로시설물, 옥외 광고물이 경관훼손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관사업에 대한 주민의 참여 의사는 10년 전이나 현재에도

상황에 따라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많으나 참여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10년 전에 비해 더 많아진 것으로 변화되었고, 사업방법은 주민/행정/전문가가 일체가 되어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을 보임으로써 행정기관에 대해 과거 규제 중심의 역할에서 주민지원과 협력의 역할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의식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영암군을 대상으로 경관계획 수립지침에서 경관현황 조사 항목 중 하나로 포함되고 있는 경관의식의 변화에 대하여 시계열적으로 조사·분석 하였다. 영암군은 과거 10여 년간 도시개발 및 경관사업이 진행되었고 현재 경관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있어서 본 연구 대상으로 적합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으나 연구결과 또한 영암군에 한정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보다 실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연구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지자체간 경관의식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비교분석 역시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고인석, 김해시 도시경관에 대한 시민과 전문가의 인식차이 연구,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16(1), 2014.
- 김상범 외 1인, 전라남도의 경관의식조사를 기반으로 한 공공디자인 방안 연구, 한국경관학회지, 7(2), 2015.
- 김은자 외 5인, 전문가 인식에 따른 농촌경관 색채계획 방향 설정 연구, 농촌계획, 23(1), 2017.
- 박은영 외 3인, 농촌경관 개선사업에 대한 주민인식 및 참여만족도 연구, 농촌계획, 25(1), 2019.
- 박진현 외 1인, 농어촌경관 관리정책에 대한 관련 주체의 의식분석 및 향후 과제, 농촌계획, 18(3), 2012.
- 박현찬 외 5인, 서울 도시경관에 대한 인식 변화와 차이에 관한 연구, 서울도시연구, 11(4), 2010.
- 성현찬, 용인시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경관의식 조사,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6(6), 2003.
- 손용훈 외 1인, 근교도시의 녹지경관 유형에 따른 지역주민의 경관인식, 한국조경학회지, 39(5), 2011.
- 양정순, 도시공원 야간경관에 대한 전문가 인식 조사, 기초조형학연구, 18(3), 2017.
- 이병대, 경관중심 마을 만들기를 통한 천안시 구도심 재생 방향 설정에 관한 주민의식 조사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7(11), 2011.
- 이유직 외 1인, 농촌경관관리 개선을 위한 주체 간 인식 비교,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17(4), 2015.
- 이장민 외 1인, 김해시 도시경관에 대한 시민의 인식변화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6(2), 2015.
- 주신하 외 1인, 용인시에 대한 경관의식 변화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40(5), 2012.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2016.
- 영암군, 2020 영암군 경관기본계획, 2011.
- 영암군, 영암군 통계연보, 2018.

접 수 일 자 : 2021. 04. 10  
 초 심 완 료 일 자 : 2021. 05. 10  
 재심(1차) 완료일자 : 2021. 05. 17  
 게재 확정 일 자 : 2021. 05. 19